

五行과 陰陽

경희대학교 조교수 박 찬 국

東洋이나 西洋을 막론하고 하늘이 萬物의 變化를 主宰하고 있다는 思想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다.

中國에서는 일찌기 天文學이 發達하여 四時를 分割하게 되었다. 이 四時가 天의 日月星辰의 周旋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 내었다. 그리하여 天의 萬物을 主宰하는 일은 四時를 通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人間은 역시 地球上에서 삶을 영위 하다보니 自然의 人間生活과 密接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木, 火, 土, 金, 水, 穀 등의 重要性을 일찍부터 인식하였는데, 좀더 人智가 發達하면서 穀이란 木, 火, 土, 金, 水의 결합이나 作用으로 생성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穀이 五行에서 빠지고 五行의 概念이 形成될 수 있었던것 같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五行이 되었을까? 四時에 영향을 받았다면 四행이 되었어 입하고 앞서 말한 書經이나 左傳의 六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면 六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四經이나, 書傳 등을 보면 天의 萬物變化가 四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思想이 여전히 主를 이루고있으며 五行이 四時의 變化를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을 보면 五行을 역시 四時의 영향을 받아서 形成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왜 四행이 아니고 五行인가. 만물의 生成變化를 단지 그 變化現象으로만 관찰한다면 四행으로 곧 四象이다. 그러나 그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 主宰者로써 생각하였다면 四만 가지고는 중심이 없어 統括을 할수 없다. 즉 中國天下가 四方으로 나뉘어 그냥 있다면 모르지만 天下가 統一되어 中央에 天子가 統治될 수 있었으며, 家庭에서도 家長이 있어 다스렸듯이 그 主宰者의 存在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만물의 變化를 일으키는 原動力이 인식된 四時에다 1을 더하여 五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 五行은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事物에서 起源하여 一定不變의 四時가 습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즉 이 五行은 四時의 一定不變의 變化와 그 變化로 萬物이 生成消滅한다는 內容이 첨가되어 그 內容은 더욱 풍부하여 져고 나아가 萬物의 生成變化를 說明할 수 있는 도구로 成長하게 된 것이다. 즉 시초에 五行은 단순히 地球上의 事物의 分類라는 代表的인 명칭에 불과하였으나 四時의 개념이 도입 되어 萬物의 變化를 主宰하는 힘의 근원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 內經을 보면 五行을 이 두가지 五行의 概念이 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六氣와 三陰三陽

六氣와 三陰三陽은 內經에서는 表本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어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六氣와 三陰三陽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단지 五行과 三陰三陽과를 함께 설명하려다 보니 六氣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다시말하면 五行에서 三陰三陽(다음부터 陰陽이라 칭함) 나왔다면 六의 짜기이 맞지 않음으로 論理的 矛盾이 發生하기 때문에 中間에 六氣를 도입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하늘

에 五行이 있어 五氣를 생하면 그만이지 六氣란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 왜 필요치 않은가? 先學들은 五行과 陰陽을 자꾸 數理的으로 연관시켜 설명하려 하였는데, 筆者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五行이라 하면 이는 하나의 數致로써 인식되어 저 있다면 陰陽(여기서는 三陽三陰임)이라 하면 이는 萬物의 變化現象으로 인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五行은 만물이 存在할 수 있는 理致로써 萬物이 生成變化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 五行 自體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三陰三陽은 變化現象을 가지고 論한 것이므로 어떠한 事物이 든지 存在가 있다면 三陰三陽의 變化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즉 五行은 四物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 항상 따라붙어 있어 전혀 變化가 없는 理致는 그대로 太陰, 少陰에도 있다. 事物이 순간순간 變하는 때에 五行은 그대로 存在하고 있어 단지 그 事物이 事物로써 存在할 수 있는 理致만을 제공하고 있을 따름이다. 三陰三陽이란 五行의 理致에 의하여 存在하는 사물이 生成變化하는 과정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五行과 陰陽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아도 된다. 그러나 內經이나 後世에도 이 五行과 陰陽을 완전히 分離하여 보지않고 五行에 陰陽은 개념을 가입시켜 木火를 陽으로 金木을 陰으로 보고 있고, 陰陽에 五行을 대비시키고 있으므로 달리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를 五行을 단순한 事物의 內在的인 變化原理로 보고 陰陽을 外內的인 事物의 變化現象으로 본다면 五行과 陰陽의 理解가 훨씬 쉬어질 것이다.

이에 그 實際的인 예를 들어 筆者의 主張을 전개하여 본다.

1. 相. 火

相火란 五行에는 없는 것인데 六氣와 陰陽의 變化를 설명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실제에 있어 이 相火는 五行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事物의 內在的인 變化에서 만약 火가 들어라하면 그 調和와 均衡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꾸 이 相火를 五行이 연관시켜 생각하다보니 그 개념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다.

이 相火란 바로 五行의 理致에 따라 존재하고 있는 事物이 變化할때 그 變化現象을 三陰三陽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 存在가 필요하게 된것이다. 萬物은 모두 陰陽의 變化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즉 생성되어 形이 있게된 사물을 만드시 消滅되어 形이 없어져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萬物의 變化는 天이 主宰하고 天의 대표적인 것은 日과 月인데 日에서 陰氣(火, 熱)이 地 이 내리조일 때 만물이 成長하여 形 갖추어 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形을 갖추게된 事物은 불에 타서 다시 재가 되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됨으로 消滅된다. 역시 火에 依하여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陰陽의 變化에 이미 定立된 五行의 概念을 導入하다 보니 相火의 設定이 필요하게 된것이다.

五行과 陰陽의 結合

우리는 運氣學이나 陰陽學說에서 五行과 三陰三陽을 結合하여 使用하고 있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足厥陰肝이나 厥陰風木 등이 이러한 例일 것이다.

우리의 단순한 陰陽의 知識으로 본다면 厥陰은 陰이고 風이나 木은 陽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矛盾된 用語를 쓰고 있나에 대하여 모두 의문을 한두번 품어 보았을 것이다. 우선 이 모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 둔 것은 여기서의 木은 엄밀한

의미에서 五行의 木은 아니고 이미 三陰三陽에 도입된 五行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萬物을 統合, 調和시키려는 無極的인 面에서의 五行이 아니고 分化發達이 이루질 太極的인 面에서의 五行이라 할 수 있다. 厥陰은 이 個體內에 陰이 곧 內在的인 性質의 分化와 發達을 억제하는 太陰과 少陰의 氣運이 다 없어져서 안으로는 分化와 發達は 推進하는 木氣가 旺盛해지기 시작하고 밖으로 陰이 生成되는 징후가 나타나기 始作하는 것이다. 곧 草木이 싹이트는 것은 그 싹틈을 억제하고 있던 太陰이나 少陰의 氣運이 陽氣에 밀려서 물러가고 陽氣가 用事를 始作하여 陰을 形成하는 始作이다. 그러므로 內在的인 變化에 있어서는 木의 運動이지만 밖으로는 形이 形成되므로 陰化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天地萬物은 陰陽은 一時一地에 있어서는 陰陽의 偏勝이 있을수 있지만 全體의을로 시간적으로 長期間에 걸쳐서 陰陽의 調和가 깨어질 수 없으므로 內에서 陽化가 일어나면 外에서는 陰化가 일어나는 것이 定한 理致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면 少陽相火를 하나더 설명해 보자.

陰을 거쳐 이미 形化가 이루어진 事物은 다시 消滅의 과정을 거쳐게 되는데 太陰 濕土를 거치는 동안에 君火가 無極의 土의 자리로 들어가 天地陰陽의 氣交로 다음 세 생명의 씨로 자라날 자리를 마련하였으므로 곁에 남아있던 꺾대기만 消滅의 과정을 겪으면 된다. 이 곁에 있던 꺾대기는 少陽變化를 받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앞의 君火는 土의 作用으로 無極의 자리로 들어 갔다가 다시 陽化의 조짐을 보이니 이것이 바로 相火인 것이다. 즉 만물은 응축의 極에 달하면 擴散되려고 하고 擴散이 極에 달하면 응축되는 것이 定하여진 理致인데 太陰에서 응축되었던 土가 다시 확산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相火는 다음에 들어오는 燥金의 강한 억압으로 少陰 腎水에 伏藏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醫學에서 相火가 少陰腎에서 發生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人體에서의 五行과 陰陽

地球上의 모든 생물은 天氣와 地氣가 融合되어 생겨난 것이지만, 인간이라면 그 代表적인 存在이다. 그러나 人間이 일단 生을 가지게 되면 그 自體로써 하나의 存在로 認定받으며, 그 안에 스스로 하나의 場을 형성하여 가지고 있게 된다. 人間이 스스로 場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根本이 天氣와 地氣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天地의 法則 곧 陰陽의 法則을 벗어날 수는 없다. 人間은 그 胎生에서 天氣가 내려 쏟아지면 地가 이를 받아 地가 가지고 있던 五行과 融合하여 태어나게 되는데, 地가 天氣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地는 언뜻 보기에 質이 實하여 外部로부터 다른 性質이 들어올 수 없는것 같지만 실은 質이 實한 반면에 氣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宇宙의 모든 萬物은 五行을 가지고 있고 地球도 五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五行의 氣를 氣로 삼아 氣와 質이 結合되어 事物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氣와 質 즉 天氣와 地質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相火가 생겨나는 것은 天氣와 地氣가 融合되고 나서인데 즉 天氣가 地로 들어와 融合되면 氣가 虛하였던 地가 氣가 實하게 되는데 이 實해진 地도 다시 虛해져야 한다. 虛해지기 위하여는 氣를 發散시켜야 되는데 發散시키기 위하여는 火가 필요하고 이때 생겨난 火가 바로 相火인 것이다. 즉 例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압축하면 열이 난다든지, 天氣가 많이 들어있는 곡식을 먹으면 많은 氣를 얻을 수 있다든지, 딱딱한 나무를 태우면 열이 나는것 등이 모두 압축되어 있던 氣가 相火는 그 性質

이 다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므로 그 無根之火라고 부르는 것이다.

人間은 大氣中에 살고 있으므로 天氣를 그대로 받고 地氣는 飽食을 먹음으로써 받아 들이는데, 人體는 五臟이 있어 五行의 기능을 수행하며 人間의 根本이 되고, 이 五臟이 五行의 氣能을 수행하여 六氣가 생겨나는데 이 六氣는 六腑를 통하여 發現된다. 또한 五臟의 五行과 六腑의 六氣가 상호 융합하여 그 結果는 12經脈을 통하여 全身에 三陰三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구태여 구별한다면, 五臟은 人體에서 六腑에 比하여 陰이므로 地氣는 六腑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으나, 人間의 本이 五臟에 있으므로 天氣와 地氣가 모두 五臟으로 들어가 五臟의 五行運動의 結果로 六氣가 생겨나면 그 六氣가 六腑를 통하여 發現한다고 볼 수 있다.

天氣와 地氣가 결합하여 氣交之際인 地上에 生物의 三陰三陽의 變化가 일어나듯이 人體에서 五行과 六氣의 運動結果가 經絡을 통하여 體表에 들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六腑가 뿌리라면 經絡은 잎과 줄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人體內에서는 어떻게 六氣가 發生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五行 自體에 이미 氣가 있으므로 쉽게 이해되는데 역시 相火의 發生이 문제가 된다. 이것 역시 앞의 地球가 天氣를 받아 相火를 生成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쉽게 理解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相火가 腎에서 生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原則적으로 말한다면 相火는 五臟에 다 있을 수 있으나 五臟의 機能을 分化하여 말한다면 人體의 生理機能의 結果로 생겨난 精을 모두 腎에 藏하고 있으므로 人體에서 가장 氣의 集積이 固密한 곳이 腎이므로 腎에서 相火가 發生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腎은 五臟의 內在의 生理機能에서 볼 때 先天의 本으로 陰中의 至陰이 된다. 이 至陰이 바로 陰中에서 가장 氣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至陰은 陽으로 化하기 바로 직전의 狀態를 말하는 것이다. 腎이 이미 많은 精이 압축되어 藏하여 있다가 少陰의 藏하려는 기운이 조금 약하여 지면 厥陰 木氣의 정을 받아 相火가 發生하는 것이다. 이 發生된 화는 厥陰 肝木으로 가서는 이미 다 소모되어 버린 陰의 生成을 도와주고, 中焦太陰과 陽明으로 가서는 氣血의 生成을 위하여 水穀을 부속시켜 相火 自身の 먹이가 되는 精을 生成시키려한다. 人體의 生理機能은 四肢의 運動이나 視聽言動은 대부분 外部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人體에 흡수된 水穀의 氣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五臟이 五行運動을 계속케하거나 氣血을 全身에 運行하거나 水穀을 부속하는 등의 가장 基本的인 생리기능은 바로 이 人體에서 精을 藏하였다가 發生시키는 相火에 의하여 생겨난 元氣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즉 이 相火에 의하여 發生된 氣는 외부에서 들어온 氣를 부리는 作用을 하는 氣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宇宙의 어느 事物이나 모두 五行을 가지고 있는데, 그 物이 하나의 個體로 인정받는 것은 각기 自己의 氣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人間이라면 다른 事物에 比하여 축적된 精이 充實하여 보다 좋은 相火를 發生시킬 수 있기 때문에 萬物의 靈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宇宙도 自體의 相火가 있고 地球도 있으며, 어떠한 微者도 相火를 發生시킬수 있지만 그 質에 있어서는 千差萬別이다.